

할랄음식까지 매일 100개 메뉴... “맛있다니 힘든줄 몰라요”



11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식당을 찾은 각국 선수들이 음식을 그릇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양동혁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괄주방장

웨스턴 요리분야 25년 베테랑... 193개국 3000명 식사 준비 식재료만 하루 12.5t 소비... 육전·떡갈비·한과 등 한식 인기

양동혁(54)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식당 총괄주방장은 11일 “북한 선수단을 위해 준비한 메뉴는 많았지만 선보이지 못하게 됐다. 한국에서 만든 평양냉면과 광주 육전, 떡갈비, 주먹밥을 대접하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식당에서 언론사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수촌 식당 총괄주방장으로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193개국 3000여 명의 선수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다.

양 총괄주방장은 웨스턴 요리 분야에서 25년 베테랑이다. 특히 1급 호텔에서만 25년 넘게 음식을 만들어왔다. 국제 스포츠행사 총괄주방장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02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등 국내외 크고 작은 국제 행사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최고의 대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이용하는 선수촌 식당에서는 100여 가지 메뉴가 제공된다. Hot Food, Cold Food, Dessert, Halal 코너에 마련된 음식들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모인 선수단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식당은 동시에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선수들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0시 30분까지 식사할 수 있다.

선수촌 식당에서 하루 소비하는 식재료는 평균 12.5t 정도로, 매일 새벽 4시께 5t 트럭 2대와 2.5t 차량 1대를 통해 배달된다. 선수촌 식당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24시간 운영되는 선수촌 식당은 130여 명의 직원들이 세팀으로 나뉘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양 주방장은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관리하는 데는 쉬움이 없었지만 선수들이 음식에 대해 질문하고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자니 피곤한 줄 모른다. 실제로 맛있는 얘기를 하고 나가는 선수들도 많다”고 말했다.

선수촌 식당에서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고기 종류로, 아무래도 운동 선수들이라 보니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찾는다 고 했다.



양 주방장은 한국음식 알리기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는 “한식 메뉴인 육전, 떡갈비, 주먹밥을 외국선수들에게 소개했다니 한 번 먹어본 선수들은 계속 찾는다. 한과 또한 디저트로 인기”라며 “한국의 발효음식도 선보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선수촌 식당 식단은 위생이 중요하다고 보니 발효음식이나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는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호텔에서 근무했던 양 주방장은 선수들의 식사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는 “일반인이 하루 평균 2800kcal 정도를 섭취하는데 비해 선수들은 6000kcal에 육박하는 칼로리를 섭취한다”며 “선수들의 섭취량이 많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면 비어있는 식재료 장고를 보니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식당에는 무슬림 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코너가 따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양 주방장은 “할랄 음식을 조리하는 게 처음이라 전문업체와 상의해 식재료 공수부터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터뷰 도중에도 선수촌 식당은 훈련장으로 향하기 전 식사를 하려는 선수들로 북적였다. 양 총괄주방장은 언론과 이야기하면서도 선수들의 식사에 눈길을 주고 있었다.

양동혁 총괄주방장은 “선수촌 총괄주방장으로서 갖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선수들이 우리팀이 만든 음식을 먹고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정창훈 한국선수단장

“사상 첫 출전하는 여자 수구 100골 차로 저도 응원해주길”

선수단 82명 역대 최대 몸·마음 안다치는게 목표 광주, 수영 메카 거듭나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을 이끄는 정창훈 단장은 “우리 선수들이 몸과 마음 모두 안 다치고 대회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올해 초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에 선출된 정 단장은 12일 개막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82명의 선수로 대표팀을 꾸렸다.

지난 10일 오후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다이빙 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던 정 단장은 “열렬하다”고 말했다.

“잘 나가지는 않았지만” 경영 선수 출신의 수영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지구촌 최대의 수영 축제가 열리고, 한국선수단까지 이끌게 된 데 대한 소감이다.

그는 대회를 개최하는 광주에 “수영인으로서 죄송하면서도 고맙다”라고 했다.

이번 대회 주 경기장으로 쓰일 남부대 수영장을 예로 든 그는 “우리나라 수영장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관중석이 1만여석이나 되는 이런 경기장은 처음”이라면서 “대회가 끝나면 일부 철거가 된다고 해 아쉽지만, 광주가 한국 수영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수구와 오픈워터 수영 종목에서도 선수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

정 단장은 특히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여자수구 대표팀을 ‘아픈 손가락’에 비유했다.

수구는 올림픽에서도 1900년 제2회 파리 대회부터 남자부 경기를 치르고, 여자부 경기는 2000년 시드니 대회 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전통 있는 종목

이다.

정 단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수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이번 여자팀 선수들은 52일간의 국가대표를 끝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중학생 2명, 고등학생 9명, 대학생 1명, 일반부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첫 여자수구 대표팀은 오는 14일 세계적 강호 헝가리와 역사적인 첫 공식경기를 치른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국기(國旗)가 태권도이듯이 헝가리는 수구가 국기다”라면서 “굉장히 큰 골 차가 날 수 있다. 헝가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0-100으로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걱정했다.

그리고는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많이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선수들은 40여일 준비하고 연습경기 몇 차례 치른 채 세계대회를 뒀다”며 세계무대에 첫선을 보일 한국 여자수구대표팀에 응원을 부탁했다.

정 단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수영 선배로서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했다.

정 단장은 “물론 메달을 기대하는 선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몸도 마음도 안 다치는 것이다. 메달리스트도 좋지만 건강한 수영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

저희 그린장례식장은,

2002년 4월 개업 이래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 차별화로 국내 장례문화를 선도해 왔으며, 과열된 경쟁 속에서도, 오직 정직과 사회적 책임감 하나로 앞만 보고 정진하였기에, 대한민국 나눔대상 수상, 대통령상 수상 등 빛고를 문화수도의 명소로서, 시·도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오직, 한결같은 애정으로 베풀어 주신 시도민의 은혜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뢰옵기는, 최근 광주시가 그린장례식장에 인접한 舊 광주교도소 부지에 “가칭” 솔로몬파크 조성사업 로드맵을 발표하여, 이에 부응코져 지난 12월 모 건설사가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부지로 그린장례식장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19. 6.30일 잔금을 수령기로 하였는 바, 부득이 명도준비를 위한 영업을 2019. 6.29일자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건설 시행사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불이행(잔금납부일, 계약금액, 지급방법 위반 등) 사태로 말미암아 개점휴업 상태인 바, 당사는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잔금을 수령하는 데로 폐업을 진행할 것이며, 다만, 계약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현 장소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도민 여러분께 갑자기 불편함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어떤 결과로도 새롭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그린장례식장(주) 회장 김 영 관외 임직원 일동